

# 4년동안 '알찬 대학' 만드는데 힘 써와

“대학 조직은 대규모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닮아 있다. 구성원을 배려하고 창의적 영감을 불어넣을 대형 오케스트라의 명지휘자가 되겠다.”

4년 전 김동원 총장은 취임 일성으로 분권과 공감, 융합을 기치로 '전북대학교'라는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화음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알찬대학, 따뜻한 동행'을 캐치프레이즈로 삼고 대학 운영 전반의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에 내실을 다지고 국가거점국립대학으로서 지역과 따뜻하게 동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대학의 현실과 재정난, 거기에 코로나까지 겹치며 부침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지난 4년, 전북대가 혁신의 시간을 만들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동원 총장은 임기 만료를 한 달여 앞둔 12월 29일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지난 4년의 재임 성과를 정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동영상을 통해 지난 4년의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보였고, 편안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지난 4년의 소회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4년의 시간 알찬 대학을 만들고 지역사회에 따뜻하게 동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처음 계획했던 것을 못다 이룬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어려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온 힘을 모은 대학 구성원들과 성원을 보내준 지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사진 오른쪽)이 29일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 “연구성과 지역에 환원... 상생·협력 시스템 구축에 보람 느껴 약학대학 유치·거점 국립대 최고 수준 국비 확보 등 결실 한국표준협회 평가 재학생 만족도 거점 국립대 1위, 최고 성과로”

이를 통해 207억 규모의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를 비롯해 180억 규모 정읍캠퍼스 내 제약산업 미래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150억 규모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사업 및 BK21+ 등 대형 연구 과제를 잇달아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어요. 이같은 지원을 통해 연구비 수주액 전폭 11위, 연구과제수 9위, 교수 1인당 연구비 거점국립대 1위 등 연구 중심대학의 면모를 확실하게 갖춰가고 있습니다.

Q. 대학원 육성에 크게 공을 들인 것으로 아는데요?

- 연구중심대학으로 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대학원이 살아야 합니다. 때문에 대학원 전문 학사·행정 조직을 신설해 지원 기능을 강화했고, 우수 대학원생 양성을 위해 장학금 대폭 확충을 통한 대학원생에 대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 냈죠. 지난해까지 135명이 신입생과 387명의 재학생이 혜택을 봤습니다. 교육과정 도 석·박사 통합과정 도입 등 연구 집중 시스템으로 개편하고, 융·복합 과정을 신설했어요. 그랬더니 대학원 충원율이 78%에서 89%로 높아졌죠.

Q. 취임 당시 대학이 지역발전의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까?

- 그렇습니다. 이제는 대학만이 아닌 지역의 기업과 연구기관, 지자체가 연대를 통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유와 개방을 기본으로 하는 플랫폼을 강조한 것이죠.

또한 대학의 연구 성과가 대학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산업이 발전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애플 메타(옛 페이스북) 등 세계적인 기업들도 처음엔 대학에서 시작했어요. 우리도 지역에 그런 기업을 만들어야 하죠.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고, 육성·보육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키워야 합니다.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미 우리대학이 보유한 수송엔진 원천기술을 활용한 기업이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가 있어요. 이제 지역혁신플랫폼(RIS) 사업이 시작되면, 대학의 플랫폼 기능은 더욱 강화되고 확대될 겁니다.

Q. 이와 관련해 올해 유치한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과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눈부신 성과로 손꼽힙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 캠퍼스 혁신파크 선정을 통해 캠퍼스를 21세기 성장동력인 ICT·BT·CT 등이 집적한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로 변모시키기 위한 계획이 착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1,110억 원을 투입, 구정문과 실내체육관 일대의 유휴부지 3만6,580㎡에 미래형 첨단산업단지 캠퍼스 혁신파크를 조성하는 게 골짜죠. 이 사

업에는 선도 엔지니어를 하게 될 네이버(헬스 부문)·KT·하림·IMI 등 180여개 기업이 함께 참여합니다.

현재 510억 원이 투입되는 1단계 신학원 혁신허브 건립 사업이 추진 중인데, 2023년 오픈을 목표로 문화콘텐츠, ICT, 바이오융복합을 중심으로 기업 입주공간과 연구소, 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이 마련됩니다.

1단계 사업은 메타버스 중심 첨단 디지털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전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D-TOWN)과 연계해 미래 산업 육성을 물론 지역발전 동력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Q. 캠퍼스 혁신파크와 함께 '신학원플라자' 신축도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중요사업으로 손꼽힙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신학원플라자는 275억원의 총 사업비가 투입돼 1만,462㎡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8층으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혁신파크 사업과 대조적으로 나노, 탄소, 바이오 분야를 이끌 50여개 혁신셀과 디자인스튜디오, 머신숍, 신학원 공공실험실습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학 연구실을 오픈랩 형태로 개방해 신학원 공동연구팀이 기업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대학 보유기술과 인력을 맞춤형으로 공급해 기업 사업화 플랫폼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연구인력과 기업, 행정기관이 지역발전을 위해 한 곳에 모이는 만큼 지역발전을 위한 시너지가 되고, 세계 수준의 월드클래스 기업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유니콘 기업 육성에 큰 역할이 기대됩니다.

향후 캠퍼스혁신파크와 신학원플라자는 대학기술을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혁신성장 모델로 주목받을 겁니다.

Q. 대학을 K-유니콘 기업의 산실로 만들기 위한 창업과 기술사업화에 대한 지원도 다양했는데요?

- 창업과 기술사업화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북대는 지역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창업 관련 정부 지원 사업을 모두 유치해 지난 4년 간 200여 이상을 지원했어요.

그렇더니 2018년까지 5개에 불과했던 교수 실험실 창업 기업이 2022년 현재는 37개로 늘었습니다. 대학이 가진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해 대학기술의 상용화를 활성화하는 사업에도 큰 노력을 기울였죠.

교육부의 대학창의적자본 실용화지원사업이나 과기부의 대학기술경영혁신사업 등을 통해 4년 동안 총 55억원이 투입됐고, 이를 통해 8건의 과제 지원과 12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어요.

전북대기술주회사 설립과 기업의 시제품 제작 지원, 유망기술 발굴 및 사업화 기획, 기술마케팅 활동 등 지속적 지원을 통해 더 큰 성과가 기대됩니다.

Q. 교육시설 개선 등 캠퍼스 혁신에도 큰 공을 들이신 것 같습니다.

-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는 결코 소홀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립대인 전북대는 국가 예산 확보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재부를 포함한 정부 기관에 발로 뛰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결과 학생자치단, 생활관, 농생대·약대·자연대 교육관 실험동물센터, 스포츠컴플렉스, 캠퍼스혁신파크, 신학원플라자, 의생명융합관 등에 2,000억원을 투입해 교육·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Q. 전북대 가족과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다면?

- 전북도민들의 기대와 관심 덕분에 지난 4년, 전북대가 혁신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전북대의 혁신은 눈앞의 작은 이익이 아닌 장기적 안목으로 알찬 대학을 만들기 위한 혁신이었습니다. 전북대는 지역을 넘어 국가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대학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지역발전의 에너지로 환원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이 더 많이 응원해주길 바랍니다.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한다면 이뤄지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Q. 임무 후 계획이 있으신다면?

- 4년을 전북대의 혁신과 발전이라는 한 길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평생 이렇게 치열하고 또 치열하게 살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임무 후엔 그동안 소홀했던 제자들 및 가족들과 의미 있는 시간도 보내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마음의 여유도 찾아가겠습니다. 정년까지는 2년여 시간이 남아 있는데, 총장에서 다시 교육자라는 본분으로 돌아가 우리 학생들과 남은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습니다.

/정은성기자

### ▶ 제18대 김동원 총장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공학석사, 일본 북해도대학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8년 전북대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로 부임해 전북대 산학협력단장, 공과대학장, 공학교육혁신기점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2019년 1월 전북대 제18대 총장에 취임해 2021년 전북지역대학총장협의회 회장, 2022년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회장 등을 지냈다.

Q. 지난 4년 대학을 이끌어 온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 지나온 4년을 자평하자면 혁신의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알찬대학을 만들기 위해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등에 힘을 쏟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거점국립대학으로서 전북대가 꼭 해야 할 일들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19라는 복병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똬처 헤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Q. 대학운영, 어떤 점에 역점을 두셨습니까?

- 국가 거점국립대학으로서 큰사람을 키우는 교육시스템 구축과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 마련에 역점을 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이 지역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자·학 협력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대학의 존재 이유가 교육과 연구를 통해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특히 국가거점국립대학들과 연계한 학사교류 활성화를 통해 유례없는 대학 위기를 '공유와 연대'를 통해 해결하려는 기반을 닦았습니다.

Q. 기억에 남는 성과를 꼽는다면?

- 대학 30년 숙원이었던 약학대학을 유치한 일이나 거점 국립대 최고 수준의 국가 예산을 확보한 일 등 모두가 다 소중한 결실이었습니다. 그 중 한 가지를 꼽으려면 재임기간 동안 한국표준협회가 평가한 재학생 대학 만족도를 4년 연속 거점 국립대 1위를 기록한 것을 들고 싶어요. 한국표준협회는 KS마크를 인증해주는 기관으로 그 평가에 대한 공신력이 매우 높습니다. 그만큼 전북대의 교육 서비스가 타 대학에 비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학생들 만족도가 가장 높은 대학, 이보다 더 좋은 평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Q. 학생 만족도의 요체는 교육의 혁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혁신이 있었나요?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문계열 간 교차 교양교육, 융합·연계 전공 개설, 사회수요 맞춤형 교과목 도입 등 교육과정을 대폭 개편했습니다. 실례로 인문사회계 학생뿐만 아니라 이공계도 고전명저를 읽도록 했고, 인문계 학생들도 코딩 교육을 받도록 했어요. 특히 국가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공간정보와 미래자동차공학 연계전공을 신설하고, 첨단 분야 중심의 인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학점단위 단기 집중 역량 개발 교육과정인 마이크로디그리도 도입했습니다.

전공 분야에서 학과별 세부 전공트랙을 통해 대학원 진학 과정, 산업계 맞춤형 과정, 취업 실무형 교육 과정 등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학생에 대한 취업 및 진로 상담을 위해 전공진로설계 교과목을 공통 개설하고, 교수가 학생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었죠.

Q. 교육 혁신과 함께 학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지원도 학생 만족도로 귀결되지 않았습니까? 재정에 대한 압박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 그렇습니다. 학령인구의 급감과 14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등으로 대학 재정이 매우 어

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면 안되기 때문에 다양한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립대육성사업이나 대학혁신지원사업, LINC+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BK21사업, 디지털혁신공공대학사업, SW중심대학사업,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 등인데, 대부분 학생교육에 투입될 수 있는 재정이지요. 지난 4년간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모두 1,300억 원이 넘는 교육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교과 및 비교과 영역에서 다양한 경험과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했고, 특히 많은 학생들이 우물 안 개구리를 벗어나도록 해외 대학과의 교류경험을 제공했어요.

Q. 재임 중 닦인 코로나19로 대학운영이 녹록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 처음 겪어보는 비대면 시대에 여러 혼선이 있었습니다. 학생 관리나 첫 비대면에서의 안정적 수업 운영이 관건이었어요. 이를 위해 본부와 단과대학 IT를 구성해 비상상황에 신속대응하고 수업운영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안전한 수업 운영이 가장 큰 신경을 썼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비대면수업 초반 다소간의 혼란도 있었지만 이제는 안정적으로 정착되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것 같아요. 결국 이러한 코로나19 사태가 현재의 대학 간 원격 학사교류가 시작되는 가장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Q. 연구중심대학 도약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연구 경쟁력은 대학의 경쟁력파도 직결되죠. 어떤 정책을 펼치셨습니까?

- 소위 '전북대 스타교수'를 육성하기 위해 우수 연구자에 대한 집중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생애주기별 연구경쟁력 제고 사업을 통해 신입교수부터 정년 후 연구자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이죠. 연구생애 주기에 따라 우수 신입 교수는 'JNU Yang Fellow'로, 부교수 및 중진 5년 내의 교수는 'JNU Fellow', 교수중진 5년 이후부터 만 60세까지는 'JNU Star Fellow', 그리고 연구 원숙기에 접어든 우수 연구자에게는 정년 후에도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석좌연구교수(JNU Distinguished Research Professor)'로 지정해 연구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수연구교수 도약지원사업을 통해서도 대학 내 15개 연구소를 선발, 학술지 발간과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개최 등을 지원해 대학의 연구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했어요. 앞으로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단과대학이 우선적으로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하도록 정부의 특별 재정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연구자 개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대형 국가 연구과제를 수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 대형 연구과제를 기획하고 수주할 수 있도록 국책사업유치추진실을 만들어 대형 국가 R&D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 활용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